

해질 무렵 흰색꽃을 활짝 피우는 옥잠화



옥잠화

달빛아래 은은히 피지는 맑은 향기
한여름 석양에 만발하는 ‘백학선’

정 언 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옥잠화(*Hosta* spp.)는 백합과에 속하는 내한성 속근초다. 꽃 모습이 옥비녀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신선한 학을 연상한다 하여 백학선(白鶴仙)이라고도 한다. 침착하고 조용함, 고독, 추억 등의 꽃말을 가진 옥잠화(玉蠶花)는 초록색의 윤택한 잎과 여름밤 달빛 아래 은은히 피지는 맑고 달콤한 향기가 일품이다.

옥잠화는 절화뿐 아니라 분화나 화단용으로도 유망하다. 특히 생육이 왕성하고 그늘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지피식물(地被植物)로서도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가 적고 재배하기 쉬워 대중화에도 적합한 자생화초다.

주요 품종 및 특성

옥잠화는 중국이 원산지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에(세종이전 추정) 들어와 전국적으로 자생하고 있는데, 시골 부잣집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옥잠화의 잎은 질경이 잎을 닮

았다. 꽃은 흰색으로 8월에 핀다. 석양에 꽃이 만개되고 아침에 시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것중 이와 비슷한 것으로 '비비추'(구례지방 방언은 '지보')는 어린잎은 나물로 이용하는데 7~8월 아침이슬에 보라색 꽃을 피운다

이 옥잠화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해온다.

아릇한 향기가 집장막 뚫으니
 얼음혼 눈넋에 흰이슬 죽었나
 옥잠화의 참멋을 아시고저 하오면
 피기전의 봉오리를 보시옵소서

이 시는 신숙주가 안평대군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선비들이 얼마나 옥잠화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절화 재배기술

재배적지 밭은 배수가 잘되고 부식질이 많은 양토질이 좋다. 중성토양을 만들어 재배하면 지역은 가리지 않아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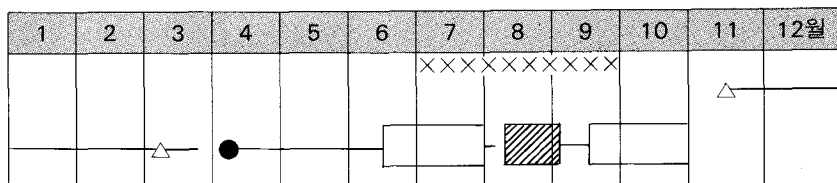
작형 옥잠화의 재배작형은 그림1과 같다.

육묘 옥잠화 묘의 가격은 700

표1. 옥잠화와 비비추의 품종별 특성

식물명	자생지	꽃색	개화기	형기	용도
참비비추	중, 북부	농자색	7~8	-	음지지피
비비추	남, 중부	연보라	〃	-	〃
흰비비추	〃	백색	〃	-	지피, 절화
좀비비추	중부	보라	〃	-	지피
흰좀비비추	〃	백색	〃	-	〃
옥잠화	중국	〃	〃	있음	절화
당옥잠화	〃	유백색	〃	-	분화

그림1. 옥잠화의 재배작형



△ 정식 ● 발아 ××× 차광망 □ 절화수확 □ 절엽수확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값이 비싸므로 육묘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생번식 가을에 씨앗을 받아서 바로 뿌리거나 층적저장(모래2와 종자1의 비율)후 파종한다. 발에 파종해도 무방하나 잡초방지와 관리를 쉽게 하려면 인공상토를 이용, 상자에 파종하는 것이 편리하다. 복토는 종자의 2배 정도로 하고, 신문지로 덮어 25℃로 관리하면 2~3주(週)면 발아된다. 발아후 신문지를 벗기고 본엽 2~3매시 포트에 가식하거나 4~5매시 본답에 정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트에 가식후 정식하는 것이 좋다.

분주 새싹이 나오기 전에 분주한다. 1포기에 눈을 1개씩 붙여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나 3~4개씩 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정식전에 벤레이트 500배액에 30분간 침지 소독하여 심는다.

정식 한번 심으면 3~4년간 재



직사광선을 피해 30% 차광망을 설치한다

배하게 되므로 반드시 재배적지에 심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식 1개월전에 10a당 퇴비 3,000kg이상, 완숙계분 300kg, 용성인비 200을 전면 살포하여 잘 경운한 후 그림2와 같이 2조식으로 심는다. 10a당 종묘는 5,000본이 소요된다. 미숙 퇴비나 계분을 사용하면 백견병(뿌리썩음병)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정식후에 건조를 막기 위하여 벗짚이나 왕겨를 3~4cm로 멀칭하고 가운데에 점적관수 시설을 갖추어 관리한다.

차광망 설치 여름의 직사광선은 잎을 누렇게 하여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므로 30% 차광망을 설치한다. 기간은 7월중순부터 9월말까지이다.

병충해 방제 병충해는 별로 없으나 고온건조기에 응애와 진딧물 발생이 심하므로 적용 살충제를 살포한다. 백견병은 완숙 퇴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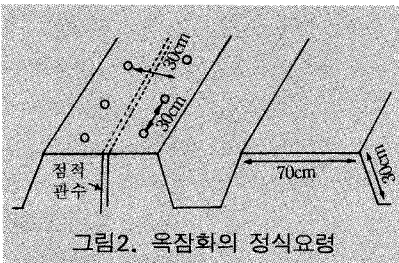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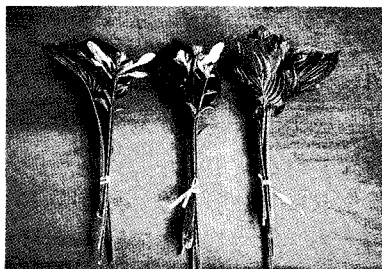


그림2. 옥잠화의 정식요령



꽃 3대, 잎 6대를 1속으로 묶어 출하한다

사용함은 물론 발병시는 뽑아서 '벤라이트' 500배액에 30분간 침지 소독한후 잎을 2/3정도 제거하고 심는다.

그밖에 달팽이가 잎을 상하게 하므로 오이를 군데군데 놓아서 유인하여 잡거나 '나메톡스'를 저녁 무렵에 적당한 간격으로 살포하여 방제토록 한다.

수확 및 출하 절화는 제1번화가 피기 전에, 절엽은 잎이 충분히 자란 다음에(너무 빠르면 흡수가 불량함) 수확토록 한다.

절화후 30분간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 꽃 3대, 잎 6대를 1속으로 결속하여 규격상자에넣어 출하한다.

소득분석 옥잠화는 절화, 분화, 화단용 뿐만 아니라 조경용으로도 유망하다. 맑고 달콤한 향기 때문에 수출 실적도 있는 자생화초로 구례지방에서 시범재배(광의면 지천리 양 한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분화재배

옥잠화는 가꾸기 쉽고 병충해가 적으며 시원한 잎, 맑고 달콤한 향기가 한달 정도 가므로 분화로서 무척 좋다.

화분은 높은 것보다 낮은 분이나 분재분을 사용한 것이 운치가 있다. 프라스틱 화분보다 도자기 화분이 한층 돋보이므로 가급적 도자기 화분을 사용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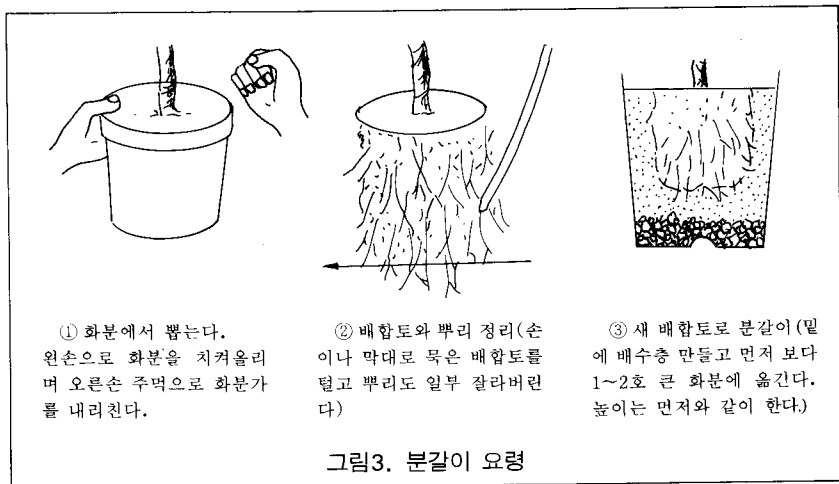
심는 시기는 새싹이 돋기전 3월 중하순에 5~7눈을 기준으로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화분용토는 부엽 5 : 배양토 3 : 모래 2의 비율로 사용하는데 배양

표2. 옥잠화의 소득분석

(10a/천원)

년 차	재 화 량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절 화	절 엽			
'89	457속	2,197	906	302	604
'90	2,700	1,500	2,190	989	1,200
'91	4,200	1,900	6,030	1,924	4,106



토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발효50ℓ에 완숙퇴비 1kg, 과석 60, 염화加里 30g을 혼합하여 속성 배양토를 만들어 사용한다.

물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여 극단적으로 건조하게 하고 비료는 거의 쓰지 말아야 한다. 옥잠화는 작게 키워야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기 때문이다.

분갈이는 2~3년에 1번씩 휴면기인 2~3월에 하는 것이 좋다.

화단재배

나무밑이나 반그늘진 곳이 좋다. 3~4월에 화단의 흙과 배양토(또는 부엽토)를 삼으로 잘 섞은 후 삼조식(삼각형)으로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그 다음부터는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 된다. 일반적인 관리요령은 절화나 분화재배에 준하여 하면 된다.

